

2025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및 2026년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기은 선임연구원(keithlee@kdb.co.kr)
 심한용 전임연구원(hyshim@kdb.co.kr)
 박지혜 전임연구원(jh5702@kdb.co.kr)
 김새롬 전임연구원(romitheworld@kdb.co.kr)

I. 2025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II. 2026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2025년 기업의 자금조달규모(1~11월 증감액 기준)는 116.9조원으로 전년동기 110.6조원 대비 6.3조원 증가하였다. 이 중 간접금융규모는 중소기업대출 34.7조원, 대기업대출 22.4조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동기대비 21.8조원 감소한 57.1조원을 기록하였다. 직접금융규모는 59.8조원으로, 회사채 순발행 증가 및 주식발행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1.7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등 조달여건 완화로 기업의 자금조달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기간중 회사채 조달여건 악화로 급증하였던 간접금융 수요가 회사채 등 직접금융 수요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기업금융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회복세, 2025년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정책·규제 측면에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있어 시설자금 등 기업 대출 수요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금공급자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신용위험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태도가 큰 폭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6년 간접금융시장에서 기업대출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및 지역우대 금융 정책, 운영자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직접금융시장의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본격화,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책 확대 등으로 회사채 및 주식발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I. 2025년 기업금융시장 분석

1. 기업금융규모¹⁾(자금조달규모) 추이

□ 간접금융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감소, 직접금융규모는 회사채와 주식 발행이 모두 증가

- '25.1~11월중 기업의 자금조달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3조원 증가한 116.9조원
 - 간접금융규모는 57.1조원으로 전년동기(78.9조원)대비 21.8조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기간인 '20~'22년 동기평균(106.3조원)의 절반 수준
 - 직접금융규모는 전년동기대비 회사채 순발행 25.2조원, 주식 발행 2.9조원 등 28.1조원이 증가하여 59.8조원 기록

- '25.1~11월중 전산업의 월평균 체감 자금사정(BSI)은 79로 전년동기대비 하락
 - 중소기업 위주로 자금사정 BSI 악화

〈표 1〉 기업금융 체감 자금사정 및 조달규모 추이

(단위 : %, %p, 조원)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11월(a)	연간	1~11월(b)	(b)-(a)
GDP성장률 ¹⁾	△0.7	4.6	2.7	1.6	2.8	2.0	0.3	△2.5
자금사정BSI ²⁾	76	87	84	81	81	80	79	△2
대기업	84	96	89	84	89	89	89	-
중소기업	66	76	75	76	73	73	70	△3
기업금융 ³⁾	167.8	174.7	175.0	119.1	110.6	103.0	116.9	+6.3
간접금융	107.4	89.3	104.6	77.4	78.9	67.4	57.1	△21.8
직접금융	60.5	85.4	70.4	45.9	31.7	35.6	59.8	+28.1

주 : 1) GDP 성장률의 (a), (b)란은 해당연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2) 기업 자금사정에 대한 경영자의 긍정·부정 응답을 0~200 사잇값으로 지수화한 것(100 미만이면 부정응답 업체수가 긍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의미, 대·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3) (간접금융) 은행대출 잔액 증감액, (직접금융)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기업금융) 은행대출 잔액 증감액 + 회사채 순발행액 + 주식 발행액

자료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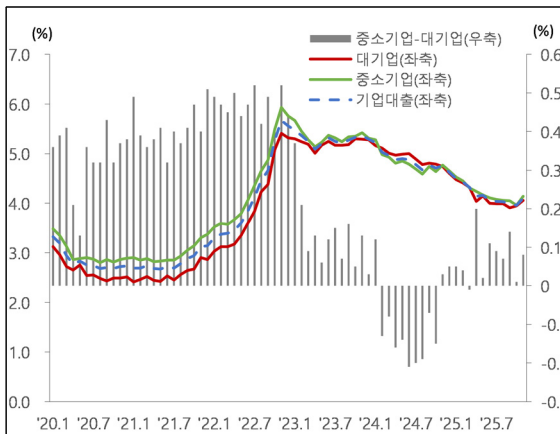
1) 본고에서 기업금융규모는 기업의 자금조달규모를 의미하며, 은행대출잔액 증감액, 회사채 순발행액 (ABS, 특수채 포함) 및 주식 발행액(기업공개, 유상증자)을 합산하여 산출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회사채 금리는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반전되어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

- (대출시장) 기업대출금리는 물가상승률 둔화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25.11월 4.10%(’22.11월 대비 157bp ↓)
 - 기업대출금리(신규취급액, %) : 5.67(’22.11월) → 5.36(’23.11월) → 4.76(’24.11월) → 4.10(’25.11월)
 - '25.11월 기업규모별 대출금리(전년동월대비) : 대기업 4.06%(△68bp), 중소기업 4.14%(△63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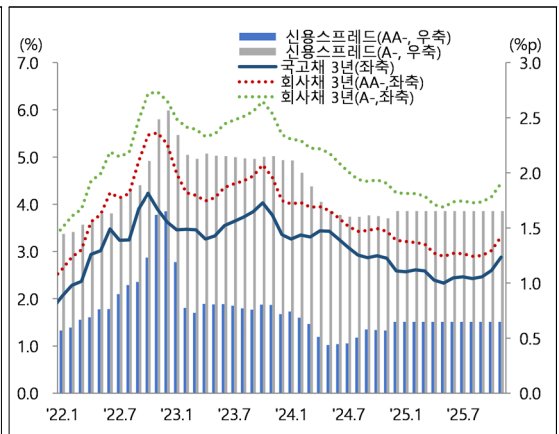
- (회사채시장) '25년 회사채 금리는 견조한 채권 투자수요 속에 상반기 중 하락 후, 하반기부터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국고채 금리 반등에 연동하여 상승
 - 회사채 AA- 금리(% , 월말) : 3.28(’24.12월) → 2.95(’25.6월) → 3.02(9월) → 3.46(12월)
 - 국고채 3년 금리(% , 월말) : 2.60(’24.12월) → 2.45(’25.6월) → 2.58(9월) → 2.95(12월)
 - 신용스프레드(3년물)는 금리인하로 회사채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며 지속 축소 후 4분기부터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기업의 신용위험 확대 우려로 소폭 상승
 - AA-/A- 신용스프레드(bp, 월말) : 68/169(’24.12월) → 44/157(’25.9월) → 51/164(12월)

<그림 1> 대출시장 차입여건



주 :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회사채시장 조달여건



주 : 회사채 금리는 민간신용평가사 3사 평균
 자료 : 연합인포맥스

2. 주요 특징

□ (간접금융시장) '25.11월말 기업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3.4% 증가²⁾한 1,372조원이며, 코로나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

○ '25.11월말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한 296.9조원 기록
 - '25년 1~11월중 조달규모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회사채 발행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8.6조원 감소한 22.4조원

○ '25.11월말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4.11월말대비 2.6% 증가한 1,075.3조원으로 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 등에 따라 대기업 대비 낮은 증가율 기록
 - 1~11월 기준 중소기업대출 조달규모는 코로나 시기 이후 지속 감소하여 '25년에는 34.7조원 기록
 · 11월말 중소기업대출 조달규모(조원) : 70.3('22년)→50.4('23년)→47.8('24년)→34.7('25년)

<표 2>

은행대출 잔액 및 조달규모¹⁾ 추이

(단위 : 조원, %)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11월(a)	연간	1~11월(b)	증감(률) ²⁾
대출잔액	기업대출	976.4	1,065.7	1,170.3	1,247.7	1,326.5	1,315.1	1,372.2	3.4
	대기업	171.8	179.3	216.9	247.8	278.8	274.5	296.9	6.5
	중소기업	804.6	886.4	953.4	999.9	1,047.7	1,040.6	1,075.3	2.6
	가계대출 ³⁾	988.8	1,060.7	1,058.1	1,095.0	1,141.4	1,141.0	1,175.6	3.0
	총대출	1,965.2	2,126.4	2,228.4	2,342.7	2,467.9	2,456.1	2,547.8	3.2
조달규모	기업대출	107.4	89.3	104.6	77.4	78.8	67.4	57.1	△21.8
	대기업	19.5	7.5	37.6	30.9	31.0	26.7	22.4	△8.6
	중소기업	87.9	81.8	67.1	46.5	47.8	40.6	34.7	△13.1
	가계대출	100.6	71.9	△2.6	36.9	46.4	46.0	34.6	△11.8
	총대출	207.9	161.1	102.0	114.3	125.3	113.4	91.7	△33.6

주 : 1) 대출잔액은 기간말잔 기준, 조달규모는 잔액의 기간중 증감

2) 증감의 경우 대출잔액은 '25.11월말 대출잔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b/a-1]*100), 조달규모는 '25.1~11월중 조달규모의 전년동기대비 증감폭(b-a)

3) 가계대출은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기준

자료 : 한국은행

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12.4('20년말)→9.1('21년말)→9.8('22년말)→6.6('23년말)→5.4('24년말)→3.4('25.11월말)

□ (직접금융시장) 기준금리 인하 등 우호적 시장 환경 속에 회사채와 주식 발행량의 동반 증가로 기업의 직접금융규모는 큰 폭 확대

- (시장규모) '25.1~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규모는 전년동기(31.7조원)대비 88.6% 증가한 59.8조원을 기록
 - 회사채 발행은 순수회사채·ABS·특수채 발행의 동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4% 증가하였고, 주식 발행도 유상증자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4.9% 증가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비용 감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자금조달 수요 등이 발행량 증가에 영향

- (회사채 발행) '25.1~11월 중 회사채³⁾ 순발행규모는 48.6조원(발행 210.7조원, 상환 162.1조원)으로 전년동기(순발행 23.4조원)대비 25.2조원 증가
 - (순수회사채) '25년 중 총 50bp 기준금리 인하 등 우호적인 발행 환경 속에 발행량은 전년동기대비 10.1조원, 순발행은 18.0조원 증가
 - (ABS) 공공임대주택 개발 활성화 등에 따라 부동산 PF 기초 ABS 발행이 대폭 증가('24.1~3Q 0.9조원 → '25.1~3Q 5.0조원)하며 순발행 전환
 - (특수채)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정책과 한전의 영업흑자 등에 따른 한전채 차환발행 수요 감소 등으로 상환 규모가 증가하며 순발행 규모 감소
 - 한전 영업손익(조원) : △4.5('23년) → 8.3('24년) → 11.5('25.1~3Q)

<표 3>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현황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	계
발행	'23.1~11월	87.5	22.8	55.0	165.3
	'24.1~11월	113.4	21.5	55.8	190.7
	'25.1~11월	123.5	26.5	60.7	210.7
상환	'23.1~11월	76.5	30.1	27.6	134.2
	'24.1~11월	95.8	25.0	46.5	167.3
	'25.1~11월	87.9	21.8	52.4	162.1
순발행	'23.1~11월	11.0	△7.3	27.4	31.1
	'24.1~11월	17.6	△3.5	9.3	23.4
	'25.1~11월	35.6	4.7	8.3	48.6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

3)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로 구분하며, 직접금융시장 중 기업금융 분석에 집중코자 특수채 규모 산출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을 제외한 비금융 특수채권으로 한정

- (주식 발행) '25.1~11월 중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 동기(8.3조원)대비 2.9조원 증가
 - (기업공개) 코스닥 상장 목적의 중소형 IPO 위주로 기업공개가 진행되었고, 상장 전수가 전년동기대비 25건 감소하며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 축소(전년동기대비 $\Delta 0.8$ 조원, $\Delta 20.5\%$)
 - 주요 대규모 IPO(억원) : LG씨앤에스(1월, 6,000억원), 대한조선(7월, 4,000억원)
 - (유상증자) 코스피 상장기업 중심의 발행이 대폭 증가하며 유상증자 규모 확대(전년동기대비 +3.7조원, +84.2%)
 - '25.1~11월 유형별 유상증자 증감액(전년동기대비, 조원) : 코스피(4.1조원), 코스닥($\Delta 0.1$ 조원), 기타($\Delta 0.3$ 조원)

<표 4>

주식발행 현황

(단위 : 조원)

	기업공개	유상증자	계
'23.1~11월	3.4(114)	6.8 (54)	10.2(168)
'24.1~11월	3.9(105)	4.4 (47)	8.3(152)
'25.1~11월	3.1 (80)	8.1 (56)	11.2(136)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건수
 자료 : 금융감독원

II. 2026년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기업금융시장 여건 분석

(1) 경제·금융환경

- 2026년 세계경제는 美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정부 및 민간투자 확대가 성장을 견인하며 전년과 유사한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
 - (선진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고용 둔화 리스크가 부담 요인이나 정부 주도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신흥국)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가 예상되고, 여타 신흥국도 관세로 인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대비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

<표 5>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국 가	2024	2025(E)	2026(F)
세계	3.3	3.2	3.1
선진국	1.8	1.6	1.6
미국	2.8	2.0	2.1
유로존	0.9	1.2	1.1
일본	0.1	1.1	0.6
신흥국	4.3	4.2	4.0
중국	5.0	4.8	4.2
멕시코	1.4	1.0	1.5
인도	6.5	6.6	6.2
아세안5	4.6	4.2	4.1

주 : 아세안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지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5.10월)

□ 2026년 국내경제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회복세, 2025년 저성장애 의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은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

- (민간소비)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 및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세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설비투자) 금리하락에 따른 투자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 회복 지연, 미국 현지 투자 확대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의 개선 흐름, SOC 예산 증가에 따른 정부 사업 확대 가능성,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대비 상승 전망
- (수출) AI 산업 성장 지속으로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美 관세 영향 본격화로 다른 산업 수출이 감소하며 전체 수출은 소폭 둔화될 전망

<표 6>

202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 억달러)

구 분	2024	2025(E)	2026(F)
국내총생산	2.0	1.0	1.8
민간소비	1.1	1.4	1.7
설비투자	1.7	2.4	1.4
건설투자	△3.3	△7.9	3.4
경상수지	990	1,070	910
수출	8.1	1.3	△1.4
수입	△1.7	△0.7	0.7
소비자물가	2.3	2.0	1.9
실업률	2.8	2.9	2.9

주 : 경상수지와 실업률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증가율, 수출 및 수입은 통관 기준
 자료 : 산업은행, 2026년 경제·금융·산업 전망 ('25.11월)

(2) 정책·규제환경

□ 주요국 중앙은행 중 미국, 유럽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 美 연준은 '25.12월 FOMC 점도표상 '26년 중 기준금리 1회 인하를 예상하며, ECB는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26년 인하 가능성은 낮은 상황
- 한편, 日 BOJ는 물가 및 경제전망을 주시하며 기준금리 인상 지속을 시사
-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고환율 및 수도권 주택가격 리스크 등을 고려해 향후 기준금리 동결 전망
- 금융통화위원회는 '26.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지난 회의까지 포함되어 있던 '금리인하' 관련 문구를 삭제

□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동 정책이 기업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 예상

- 3단계 스트레스(ST) DSR⁴⁾ 시행 및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적용 강화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 강화 중
-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3단계 ST금리(75bp→150bp)가 '25.7월 시행 되었으며, '25.10월에는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ST금리 상향(150bp→300bp)
-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금융위)의 일환으로 내부등급법상⁵⁾ 주담대 RW하한을 상향조정(15%→20%)할 계획 발표('25.9월)
-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25.12월 출범)는 첨단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자금 수요를 유발하여 기업대출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 예상
- '국민성장펀드'는 공공자금 75조원 및 민간자금 75조원 투입을 통해 5년간 약 500조원에 달하는 설비·건설투자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는 은행권의 기업대출 확대에 이어질 전망

4)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DSR을 산정하는 제도

5) 주담대 신용리스크 평가시 내부등급법과 표준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내은행들은 내부등급법을 사용 중

□ 자본규제 강화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등이 진행 중이나 이에 따른 은행권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바젤Ⅲ 도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완충자본 부과 가능성⁶⁾과 위험가중자산(RWA) 하한(Output Floor)의 단계적 상향은 국내은행의 대출 확대에 제약 요인
 - 스트레스완충자본⁷⁾이 도입되면 은행별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주 자본비율⁸⁾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 내부등급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하한⁹⁾을 '25년 60%에서 '28년 72.5%로 단계적으로 상향('25년 60%→'26년 65%→'27년 70%→'28년 72.5%)
 - 단,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이 규제 수준(중요은행 12.5%, 일반은행 11.5%)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자본규제 강화가 대출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국내은행 총자본비율(%) : 15.72('23년말) → 15.59('24년말) → 15.87('25.9월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5.9월 종료되었으나, 대출만기 분산으로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은 낮을 전망
 - 총 29.05조원 가운데 '26년 중 8.15조원, '27년 이후 20.9조원 만기도래 예정
 - 만기도래 예정 시기별 잔액(조원) : 4.1('26.1Q) → 2.2('26.2Q) → 1.5('26.3Q) → 0.35('26.4Q) → 20.9('27년 이후)
-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감안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편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하락하는 점은 우려 요인
 -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5.9월말 기준 '22년말대비 62.4%p 하락
 - 대손충당금적립률(%)¹⁰⁾ : 227.2('22년말) → 214.0('23년말) → 187.0('24년말) → 164.8('25.9월말)

6) 금융위가 '24.9월에 도입을 발표하였으나, '24.12월에 환율 급등 등 금융환경 변화로 유예되었으며, 아주경제 기사('25.12.25자) 등에 '26년 상반기 이후로 도입이 연기된다고 언급

7) 바젤Ⅲ Pillar 2(감독검토)에 따라 은행별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주자본(CET1)에 추가로 완충자본을 가산해 위기사 손실흡수력을 강화하는 자본규제

8)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이후 보통주자본비율 규제수준 : (중요은행) 9% + 최대 2.5%p, (일반은행) 8% + 최대 2.5%p

9) 내부등급법에 따른 RWA 하한이 표준방법의 72.5%에 이르도록하는 자본규제로, '25년 6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내부등급법 사용에 따른 RWA의 과소산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10) 대손충당금적립률=총대손충당금잔액/고정이하여신

(3) 자금수요자 측면

□ 기업의 전반적인 설비투자 심리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26년에도 기업대출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설비투자실적 BSI¹¹⁾와 설비투자전망 BSI 모두 전년동기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00 이하로 설비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수준
 - 설비투자실적 BSI : ('24.11월) 91 → ('24.12월) 88 → ('25.11월) 92 → ('25.12월) 91
 - 설비투자전망 BSI : ('24.11월) 91 → ('24.12월) 90 → ('25.11월) 92 → ('25.12월) 92
-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 관련 설비투자 수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중심의 운영자금 수요 확대 등에 따라 '26년 대출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 대기업 대출수요는 증가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표 7〉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수요지수 추이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대기업	3	17	17	3	11	8	6	0	6	8	14	8	6
중소기업	6	19	17	8	33	17	6	8	19	11	8	0	17

주 : '26.1Q는 전망치. 양(+)은 증가 음(-)은 감소 의미
 자료 : 한국은행('26.1),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참고1)

(4) 자금공급자 측면

□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신용위험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태도가 큰 폭으로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

- 경기 불확실성 지속 및 수익성 저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신용위험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3년 이후, 3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신규 부실채권 규모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국내은행 신규 부실채권 규모('23.3Q→'24.3Q→'25.3Q, 조원) : (기업) 3.1→3.7→3.9, (大) 0.7→0.4→0.5, (中小) 2.4→3.3→3.5

11) 설비투자 BSI = '계획대비 수정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 응답업체 구성비(%) + 100

- '26년 들어 대출태도가 완화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 등은 제약요인

〈표 8〉 국내은행의 차주별 신용위험지수 추이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대기업	6	14	6	3	3	3	6	11	6	11	11	8	14
중소기업	25	33	28	28	33	36	31	33	22	25	33	31	28

주 : '26.1Q는 전망치. 양(+)은 증가 음(-)은 감소 의미
 자료 : 한국은행('26.1),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표 9〉 국내은행의 차주별 대출태도지수 추이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대기업	6	3	3	-6	6	3	0	-11	3	-6	0	3	6
중소기업	3	0	-6	0	6	-3	3	-17	0	-14	-6	-3	11

주 : '26.1Q는 전망치. 양(+)은 완화 음(-)은 강화 의미
 자료 : 한국은행('26.1),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참고 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개요

- 조사대상 : 총 203개 금융기관
 - 국내은행 18개, 상호저축은행 26개, 신용카드회사 7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상호금융조합 142개
- 조사내용 : 금융기관의 대출태도¹²⁾,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지난 3개월간 동향 및 향후 3개월간 전망을 조사
- 지수산출 : 대출태도, 신용위험, 대출수요에 대한 동향 및 향후 전망을 5개 응답항목을 통해 조사한 후 가중평균하여 지수를 산출
 - 응답항목 : 크게 완화(증가), 다소 완화(증가), 변화없음, 다소강화(감소), 크게 강화(감소)
 - 가중평균 : {['크게 완화(증가)' 응답비중 x 1.0 + '다소 완화(증가)' 응답비중 x 0.5] - ['크게 강화(감소)' 응답비중 x 1.0 + '다소 강화(감소)' 응답비중 x 0.5]} x 100
- 지수범위 : 100과 -100 사이에 분포하며 기준치는 0
 -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

2. 기업금융시장 전망

(1) 간접금융시장 전망

□ '26년중 기업대출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및 지역우대 금융 정책, 운영자금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25년대비 증가할 전망

- 대기업대출 조달규모는 국민성장펀드 출범(150조원 규모) 등 정부의 대규모 첨단전략산업 지원 및 은행의 대출 확대전략 등으로 인해 '25년대비 확대 전망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및 중소기업 위주의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국내 은행의 대기업대출 확대 유인 상승
 - 또한, '26년 순수회사채의 순발행금액의 증가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대기업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 전망

- 중소기업대출 조달규모는 경기 불확실성 대응 차원의 운영자금 수요 확대, 정부의 지방우대 금융 정책 영향 등으로 '25년대비 확대될 전망
 -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13),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출 관련 예대출 규제 완화 등으로 지방 중소기업 앞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다만, 코로나 기간중 악화된 중소기업 재무구조가 단기간내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어 중소기업대출 확대폭은 제한 전망
 - 부채비율은 코로나 이전('19.4Q, 106.7%)대비 여전히 높은 편('25.3Q, 108.7%)
 - 중소기업대출 업종별 연체율('24.12월→'25.3월→'25.6월, %) : (건설업) 1.05→1.28→1.18, (도·소매업) 0.86→0.99→0.95, (제조업) 0.70→0.83→0.84

12) 금융기관의 대출 확대 또는 축소 의지를 나타내며 강화는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 완화는 그 반대를 의미

13)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비수도권 소재 기업 앞 자금공급 규모를 '25년 96.8조원에서 '28년 120조원까지 확대하는 지역우대 금융 정책

(2) 직접금융시장 전망

□ 2026년 회사채 순발행은 우호적인 발행 여건 속에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개시 등에 따라 특수채 중심으로 소폭 확대 전망

- 한은은 '25.7월 이래 기준금리를 동결 중이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본격화로 회사채 순발행은 확대될 전망
 - 다만, 기발행 물량에 대한 수급 부담, 금리인하 지연 현실화, 기업 실적 우려 등의 리스크 요인이 회사채 순발행 증가 폭을 제한할 가능성

〈표 10〉 회사채 종류별 만기도래 규모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	ABS	특수채	계
만기도래액	'25년(a)	91.7	23.7	56.6	172.0
	'26년(b)	96.5	21.0	55.1	172.6
증감	(b)-(a)	4.8	△2.7	△1.5	+0.6

자료 : 코스콤

- 순수회사채 발행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ABS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 특수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영향으로 발행 확대 전망
 - (순수회사채) 전년대비 만기도래액 증가에 따른 차환발행 수요 등이 회사채 발행의 증가 요인이거나 '25년 대규모 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발행 증가 폭은 완만할 전망
 - (ABS) 건설투자 회복세 속에 부동산 PF 중심의 발행 증가세 지속이 예상되나, 가계부채 대책 등이 증가 폭을 제한하여 발행규모는 전년과 유사할 전망
 - (특수채) 만기도래액 감소에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26년 중 발행 한도 15조원) 개시 등으로 전년대비 발행규모가 확대될 전망

- **주식발행은 대기업 IPO 대기 물량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설비투자 및 수출 둔화, 비IT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등이 증가폭을 제한하는 요인**

- 2026년 주식발행규모는 국내 증시 약진 속에 대기업들의 코스피 IPO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5년에 이어 국내 증시의 약진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과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책 확대 등이 주식 발행의 주요 증가 요인
 - 코스피지수(P) : 2,399.49("24.12.30) → 3,071.70("25.6.30) → 4,214.17("25.12.30) → 4,840.74("26.1.16)
 - LS에식스솔루션스, HD현대로보틱스 등 계열대기업 자회사 등이 신규 상장을 추진 중에 있어 주식발행 규모는 코스피 상장기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

- 단, 美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과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 둔화 등이 국내 기업 실적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여 주식 발행 증가 폭을 제한할 가능성
 - 이차전지 산업 부진,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본격화 등 비IT 업종의 실적 악화 우려 등도 주식발행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

< 붙임 >

연도별 회사채 발행, 상환 및 순발행 추이

(단위 : 조원)

	순수회사채(a)			ABS(b)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8년	79.4	60.6	18.8	25.4	23.1	2.3
'19년	91.8	55.5	36.3	26.0	22.2	3.8
'20년	97.8	64.5	33.3	29.2	22.7	6.5
'21년	104.0	70.7	33.3	31.1	22.0	9.1
'22년	76.8	73.1	3.7	30.1	23.5	6.6
'23년	89.4	79.4	10.0	24.5	30.1	△5.6
'24년	120.6	98.8	21.8	22.9	27.3	△4.4
'25.1~11월	123.5	87.9	35.6	26.5	21.8	4.7

	특수채(c)			계(a+b+c)		
	발행	상환	순발행	발행	상환	순발행
'18년	24.1	31.1	△7.0	128.9	114.8	14.1
'19년	30.4	27.2	3.2	148.2	104.9	43.3
'20년	37.7	27.9	9.8	164.7	115.1	49.6
'21년	39.7	25.8	13.9	174.8	118.5	56.3
'22년	63.4	24.7	38.7	170.3	121.3	49.0
'23년	64.2	33.6	30.6	178.1	143.1	35.0
'24년	60.9	51.5	9.4	204.4	177.6	26.8
'25.1~11월	60.7	52.4	8.3	210.7	162.1	48.6

주 : 특수채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MBS, SLBS) 등은 제외
 자료 : 코스콤